

광주시, 청년 사회적 성장·직장 적응 돕는다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 적응 지원사업 선정...국비 30억 확보 청년일자리스테이션 2곳 운영...기본 오피스 교육 등 맞춤 지원

광주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의 사회적 성장과 직장 적응 등을 돕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과 '직장 적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9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15~3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단념을 하지 않도록 취·창업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24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청년 친화 거점 공간인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청년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 2곳(동명·상무센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청년 1만1000여명에게 맞춤형 초기 상담, 취창업·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직장 적응 지원사업'은 입사 초기 청년의 직장 적응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5억68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8억1200만원을 투입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

직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친화 조직문화 조성 프로그램'은 기업 관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세대 이해 공감 커뮤니케이션 교육,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 교육 등을 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입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직장 예절 교육, 기본 오피스 교육 등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교육을 지원한다.

시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경영자총협회와 협약을 맺고 '청년성장 프로젝트'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9억6000만원 등 총사업비 39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 이후 직장 적응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권운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루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직장 적응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디자인 비즈 플랫폼 구축

지역 디자인기업 500여곳 참여 디자인 컨설팅·제작 원스톱 지원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컨설팅부터 개발, 제작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디자인 비즈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제품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는 제품 디자인 혁신을, 이를 수행하는 디자인업체는 수요 창출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품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8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디자인·브랜드로 애로를 겪었다'는 응답이 82%(62개)였다.

특히 지역 디자인업계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자금 부족, 인력난, 단가 인상 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디자인을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지역 디자인기업, 인쇄기업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했으며, 올해는 디자인기업(파트너사) 모집, 시스템 개발 등 플랫폼 구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등 지역 500여개의 디자인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자인 수요층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프라인 디자인 전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신화 광주시 콘텐츠산업과장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수요 창출까지 이어져 지역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시도지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자원 집약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박완수 경남지사, 왼쪽 네번째 유정복 인천시장. (광주시 제공)

강 시장 "광주 AI가 대한민국 AI 경쟁력 끌어올릴 것"

지방자치 30년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참석...AI 주제토론

강기정 광주시장은 25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AI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은 속도와 집적"이라며 "국내 최대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AI컴퓨팅센터 등 AI 산업을 최대한 빠르게 집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광주는 비수도권 최초의 AI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갖출

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는 인공지능사관학교 등 다양한 AI 인재양성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유망 AI 반도체 설계기업들이 인재를 보고 광주에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260여개의 AI기업이 광주행을 택할 만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 30년에 대해선 "단식과 투쟁의 역사"로 정의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으로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역 전략산업의 예타 면제 등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넘어 지방정부가 주인공이 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광주의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초등생학부모 10시 출근제와 같이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국화하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893억원 투입 수산식품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수출단지·마른김 물류단지·산지가공시설 건립 등 집중

전남도가 올해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산식품산업 육성, 신 유통체계 구축, 전일업 산업 육성, 청년창업 지원 등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89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수산기업 가공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수출단지(총사업비 1137억원) 내 국제마른김 거제도, 임대형 가공공장을 2026년 2월까지 준공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15개 사업에 539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최근 물길 생산량 확대에 맞춰 마른김 가

공기업의 가공능력 향상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번 정부추경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00억 원 국비 편성과 '마른김 정부 비축' 사업비 600억원 지원도 건의 중이다.

또 마른김의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마른김 물류단지(FDC·FPC) 건립,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건립 ▲수산물 유통상자 보급지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 21개 사업에 226억원을 투입한다.

전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채염기 등 자동화장비 보급 ▲염전 바닥재 개선 등 위생시설 지

원 ▲소금박람회 등 브랜드가치 제고 등 14개 사업에 108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신규·예비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을 통해 신규창업, 혁신제품 개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전문가 기술교육, 수출시장 개척 등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 수산기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경쟁력있는 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산식품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